



다조아 TV

다조아뉴스

다조아뉴스는 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개설한 다조아TV 홍보채널의 소식지입니다.



이음플러스뉴스



발행 이음플러스뉴스·다조아TV | 편집인 오 산 | 발행일 2020년 9월 25일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361, 3층 (춘의동) | 연락처 032-673-0579 | 홈페이지 www.eumplus.net

- 01 ·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 대표 인터뷰 영상촬영
· 외계인 '박스' 다조아 TV 인터뷰 후기
- 02 · 이디놀이심리연구소 이유민 대표
· 착한먹거리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착한농부
- 03 · MBC에 방송된 스마일어게인 협동조합 소년희망공장
· 복사골공예협동조합, 천연수세미 에코디어 출시
- 04 · 이디놀이심리연구소, 이음플러스와 능률향상 교육협약 체결
· 해남기획협동조합, 한국난방공사로부터 후원받아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 회원사 대표들 인터뷰 영상촬영 마쳐

지난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회장 최승주) 소속 9개 협동조합 대표들의 인터뷰 영상촬영이 시루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에서 있었다. 이날 인터뷰는 협의회 회원사들이 자신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 '다조아TV'에 업로드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촬영에 나선 대표들은 낯선 상황에 어색해하면서도 진행자의 질문에 곧잘 따라갔다.

인터뷰 진행은 외계인 '박스'와 마술사 '제니'가 호흡을 맞췄다. 외계인 '박스'는 부천시 노사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일드림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업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자 민준기다. 민씨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박스' 컨셉으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구상하고 있다. 또 다른 진행자 마술사 '제니'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마술사로 변신에 성공한 열정 넘치는 여성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마술 공연과 강연의 신기원을 열고 있다. 마술사 제니, 황보현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음플러스의 이사이기도 하다. 이들 두 명의 진행자가 가벼운 마술과 살가운 입담으로 인터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는 ▲강사협동조합 세움(이사장 김일숙) ▲콩나물신문협동조합(이사장 박상래) ▲햇살상인협동조합(이사장 정원준) ▲이음플러스심리상담센터(소장 최지혜) ▲이음플러스(이사장 오산) ▲스마일어게인협동조합(대표 최승주) ▲생생도시농업협동조합(대표 서미숙) ▲우리하나예술협동조합(대표 김송연) ▲YWCA 협동조합(팀장 이경숙) 등이 영상촬영에 참여했다. 촬영한 영상은 편집이 완료되면 10월 중으로 '다조아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천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다조아TV', '종아요'와 '구독'을 꼬~옥 눌러주기 바란다. '종아요'와 '구독'은 '관심'이고 '사랑'이다.

글 | 오산(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이사장)



외계인 '박스'로부터 온 편지, "안녕, 부천 협동조합들"

외계인 '박스'의 다조아TV 인터뷰 후기



문화의 도시 판타지아 부천에 불시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시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 아참 나를 잠시 소개하자면 우주에서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어서 한참 지구에 적응 중인 외계인 박스라고 한다. 지금은 인간의 몸과 공생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의 몸에 원래 주인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취업 준비생이었다.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래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부천에 '일드림센터'라는 청년들에게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하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내 이목을 끈 것은 다름 아닌 무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교육이었다. 인간들은 하루라도 미디어를 보지 않고는 못사는 것 같더군. 지구에 적응하기 위한 나에게는 '일드림센터'에 이런 교육과정은 굉장히 유용하였다. 1인 미디어로 창업하는 법,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법, 홍보하는 법, 수익을 내는 법 등에 대해 배웠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곳에서 열린 작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작은 경진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음플러스 오산 이사장이었다.

오산 이사장은 지구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마 나의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내게 제안한 것은 '다조아TV'라는 부천시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였다. 거기서 내게 기획과 콘

티, 사회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이제 1인 미디어를 시작한 내게도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될 것이었고 지구 정착 자금도 소소하게나마 지원해 준다고 하였다. 그렇게 이음플러스와의 인연이 생기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촬영에 앞서 '다조아TV'에 출연하는 협동조합 대표들과의 사전인터뷰가 필요했다. 부천에는 정말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였다.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인터뷰를 하니 지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고 같은 인간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곳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재미있는 활동과 의미 있는 일들이 궁금하다면 '다조아T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외계인인 나도 이들의 구성원 중 한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표들에게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름 나의 지성을 이용하여 콘티라는 것도 짜서 촬영에 참여하였다. 총 촬영 횟수는 9번이었다. 출연자는 9곳에 협동조합 대

표들과 외계인인 나 그리고 마술사 제니다. 촬영과 편집은 '아이삭 컴퍼니'의 전문가들이 맡았다. 나와 제니는 사회자 역할이었고 제니는 마술사답게 여러 마술들을 보여주며 능숙하게 대표들과의 토크를 이끌어 갔다. 난 '다조아TV' 컨셉에 맞춰서 분장도 하고 연기도 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사전인터뷰에서는 알 수 없었던 대표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 힘이 났다. 대표들도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을 하였다. 촬영은 여러 지구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다조아TV'에 참여하며 부천에 다양한 협동조합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부천과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다조아TV'에 출연하게 되어 나 역시 뜻깊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에게도 차별 없이 기회를 주고 교류를 한 '이음플러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글 | 외계인 박스(민준기)

복사로공예 협동조합

부천을 상징하는 복사꽃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입니다.

에코디어는 자연을 위한 아이디어가 담긴 브랜드입니다.

복사골공예협동조합은 손끝에서 완성되는 다양한 공예상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부천여성기업인증)으로 가방, 도자기, 악세사리, 퀼트, 캘리그래피 분야의 전문공예작가들이 모여 부천을 대표하는 밝고 감성적인 핸드메이드 문화상품을 개발 및 판매합니다.

주문 및 문의 010-9413-7019

인스타그램 @bsg_hc

가치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교육자로 기여하고 싶어 '이음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이유민 대표의 이유있는 선택

“국내 최초로 빛(VEEDD) 플랫폼을 개발한 감정관리전문가 이디놀이심리연구소의 이유민 대표”

[빛(VEEDD - Vision(비전), Emotion(감성), Education(교육), Dream(꿈), Delivery(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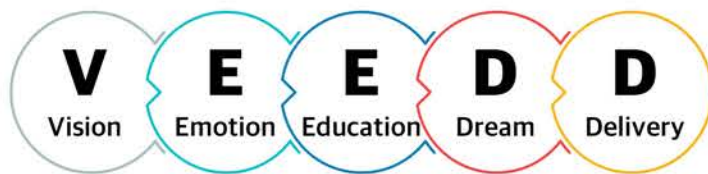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현대인의 삶에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빅 데이터와 로봇과 같은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문화적·삶의 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성과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큰 갈증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빛(VEEDD) 플랫폼을 개발한 이디놀이심리연구소의 이유민 대표는, 수년 간의 현장 경험과 교육역량, 교육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감성과 정서교육 분야의 촉망받는 교육전문가이다. 현재 이디놀이심리연구소의 대표이자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이며, 2020년 9월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의 부설 심리상담센터에 이사장 참여하며 다각도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빛(VEEDD) 플랫폼이란 기존의 교육체계와는 다른 감성과 정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활력있게 만들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전문화된 교육플랫폼이다.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분

석과 해석을 통해 감성과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자아의 재형성, 마음의 행복추구, 인간의 존엄성 회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교육 커리큘럼과 전용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민 대표가 본격적으로 감성과 정서를 연구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12년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경험을 통해 현실점에 어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적화된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백화점, 대한항공,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서비스컨설팅과 감성커뮤니케이션, 감정관리 컨설팅 전문강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 그녀는, 전국 기업, 재단, 협회, 공공기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있는 교육전문가이다. 또한 놀이심리 전문가 및 감정관리 자격을 통해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강사로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퍼실리테이션형 교육체계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다.

이유민 대표는 감성과 정서의 집단지성을 통해 새로운 측면에서의 가치 제공, 역량발휘의 재기회가 필요한 수요층(경력단절여성, 미혼모여성, 신중년 재취업 대상층 등)과 심리적 위기가 필요한 아동,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행복실현을 추구하는데 큰 뜻을 지니고 있다.

“가치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교육자로서 기여하고, 감성과 정서교육을 통해 함께 나누고 발전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이디놀이심리연구소의 최종 목표이며, 제가 이음플러스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라는 이유민대표는 급변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심리적 여유가 없고 마음의 행복이 필요한 우리들이 힘껏 나래를 펼치게 해 줄 희망 전도사이다. 이유민 대표의 큰 활약과 의미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한편, 이대표가 함께하는 이음플러스심리상담센터(소장 최지혜)는 아동상담과 가족상담 서비스를 정부지원금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천시 상담바우처 제공기관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각급 학교의 특별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한다(상담문의 673-0579).

글·사진 | 오 산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착한 먹거리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착한농부들

목이버섯을 처음 키우려는 분들에게 “목이버섯 농장 규모와 소득”

우리 버섯 농장 앞과 옆에는 상추, 토마토, 아욱, 파를 키우는 하우스가 있는데요. 농사짓는 분들이 트랙터로 밭을 뒤집고, 검은 비닐을 깔기도 하고 하루종일 땀범벅이 되어 일합니다. 이런 농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농민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속아서 산다, 속고 산다”고 하십니다.



인천 박촌동 우리 목이버섯 생육 농장은 가로 6미터 세로 50미터쯤 됩니다. (약 100평) 거기에 150줄을 8열로 배치하여 약1200줄을 걸었어요. 줄

하나에 배지를 3개씩 걸면 3600개. 다섯개씩 걸면 6000개를 키울 수 있구요. 간격을 좀더 조절하고 1.3킬로그램 배지를 6개씩 걸면 하우스 100평에 배지 10000개도 가능합니다. 부속 하우스는 50평쯤 되구요. 그 안에 저온저장고 4평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버섯 건조장으로 씁니다. 아주 최소 규모로 운영하는 셈이죠.

지난 8월 한달 동안 버섯농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일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일지를 썼는데요. 거의 300시간쯤 일하네요. 목이를 세척하여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상적인 일에, 풀베기처럼 그때그때 손보거나 챙겨야 할 일, 폭우와 강풍처럼 느닷없이 벌어지는 일을 대처하는 노동 시간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나흘 집중적으로 노동하기도 하고, 시간을 맞춰놓은 스프링클러만 믿고 하루이틀 농장에 안 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00평 규모 목이버섯 농사로 1.3킬로그램 배지 5000개쯤을 관리하고, 수확하고, 세척하고, 배달하고, 택배를 발송하는 일에 두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버섯은 부부가, 또는 친구 두 사람이, 또는 지인 둘이 함께 하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0

시간을 둘로 나누면 150시간이니, 한 사람이 하루에 5시간쯤 일하는 겁니다.



우리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주로 전담하고, 다른 조합원이 일을 조금씩 나눠서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목이버섯을 비롯하여 다른 채소 또는 과일을 생각하며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성공적으로 자리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1년은 농사를 잘 지어도 판로가 개척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비만 들이고 품값도 못 건지는 셈이죠. 월 매출 500만원을 올리려고 목이

버섯 1kg을 중간상인에게 평균 6천~7천원에 넘긴다면, 월 850kg을 팔아야 하고, 연 10톤을 생산해야 합니다. 10톤을 하려면 초보자는 봄가을 각각 1만개(모두 2만개)는 해야 하는데요. 1.3킬로그램 배지 2만개가 3000만원쯤 합니다. 총매출 6000만원에서 배지값을 빼면 3000만원이 남고, 연중 운영 비용(인력센터, 지게차, 배지운송료, 우편발송비, 박스값 등)을 빼면 2000만원쯤 남습니다. (하우스 임차료가 없을 경우) 그러면 부부 두사람 품값이 한달에 150만원쯤 남습니다. 목이버섯으로 전업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수 ① 나는 배지 1만개로 10톤을 생산할 수 있다.
변수 ② 나는 목이버섯을 모두 직거래하여 1kg에 1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변수 ③ 나는 배지를 반값에 살 수 있다.

만약 어느 부부가 이 세 변수를 상수로 만들면, 월 700~800만원 소득이 가능합니다.

목이버섯 주문전화 032-674-7474
네이버 '착한농부목이버섯' 검색

글·사진 | 한효석(착한농부협동조합 이사장)

샐러드&샌드위치 전문매장 / 케이터링(행사·모임 음식 배달서비스)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소년희망공장 3호점

‘스위트 그린’에서 만나요!

문의 | **032-321-1567**
010-5387-6839

MBC에 방송된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의 <소년희망공장>

소년희망공장 3호점 미혼모 자립일터 '스위트 그린'을 응원해주세요!

소년희망공장은 다음 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연재한 <소년의 눈물>(2015년)과 이어 국민일보에서 동시 연재한 <소년이 희망이다>(2016년)를 통해 4073명이 후원에 참여하면서 모인 '소셜 펀딩'(Social Funding)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스토리펀딩 <소년의 눈물>(2015년) 기획안에는 '펀딩에 성공하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계획 없이 '소년희망공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소년희망공장은 상상의 아이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얼마나 펀딩에 참여할 것인가? 스토리펀딩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엄마에게 버림받거나 가난의 나락에 버려진 아이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은 이 아이들의 비행을 보도할 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위기청소년의 90%가량은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이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면회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면회 와주길 기다리는 소년,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인 소년, 버림받은 분노로 자해한 소년, 가정폭력에 의해 품행 장애와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환자가 된 소년, 꿈과 희망이 뭔지도 모르는 소

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만 행길 뿐 소년의 눈물은 외면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눈물>을 읽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만 돌보느라 가슴 아픈 아이들을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월세방에 사는 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 마음이 따뜻한 동네 아저씨를 비롯하여 4073명이 펀딩에 참여하면서 7000여 만원(소년의 눈물)과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소년이 희망이다)이 모였고 이 중에서 배분받은 8천 여 만원으로 2016년 9월 경기도 부천에 소년희망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소년희망공장에선 점장인 성인 매니저 한 명과 위기 청소년 일곱 명 등 모두 열 명(학교 밖 청소년 2명은 7월 중순부터 3개월간 '부천시 꿈드림센터'지원으로 일할 예정)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망하지 않을까? 저희도 4년째 걱정하고 있지만 한 번도 월급을 밀린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돕는 공장입니다.

소년희망공장은 돈 벌기 위해 만든 가게가 아니라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일터입니다. 소년희망공장 직원들은 학원을 다니고, 기술을 배우고, 대입을 준비하고, 학교에 다니는 등으로 주경야독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희망공장은 위기 청소년의 희망지입니다.

열아홉 살에 소년희망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올해로 스물두 살이 된 '헤빈'이는 3년 된 고참으로 소년희망공장 에이스입니다. 헤빈이는 소년희망공장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미술학원을 다니는 등으로 대입을 준비 중입니다. 야간 매니저인 광호(24세)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검정고시로 고교를 마친 승주(17세)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희망공장 아이들은 상처 난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진주처럼 어려운 삶 속에서 빛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소년희망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소년희망공장은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터, 사회적인 훈련을 하는 일터, 꿈과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일터입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던 아이

들, 품행 장애와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을 앓았던 이 아이들이 희망의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손님 응대조차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공장을 책임지는 매니저로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 입니다.

3명 중 2명이 망한다는 자영업, 장사의 '장'자도 모르고 시작한 소년희망공장 또한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JTBC의 <나도 CEO> 출연과 지원으로 기사화되었고, 위기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신 분들의 꾸준한 후원 덕분에 소년희망공장은 위기 청소년의 희망을 생산하는 기지로 성장했습니다.

▲MBC-TV <어쩌다 하루>에서 방송된 소년희망공장 3호점은 미혼모 자립일터로 케이터링 전문 매장입니다. 기업과 단체 등의 세미나와 모임 등 단체행사에 필요한 식사와 컵과일, 다과와 음료 등의 케이터링을 주문받습니다. 위기청소년과 미혼모를 돕는 사회적기업이지만 동정이 아니라 품질로 평가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 등의 고객들은 <소년희망공장>이 납품한 케이터링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구입해 정성껏 만들어 납품했기 때문입니다. <소년희망공장>으로 주문해주시면 최고의 재료로 만든 케이터링을 납품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주문 부탁드립니다.



※ 소년희망공장 이야기가 지난 6월 26일(금) MBC-TV <어쩌다 하루>에서 방송됐습니다. 상단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방송된 소년희망공장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년희망공장의 꿈과 희망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 |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복사골공예협동조합, 자연에서 온 천연 수세미 '에코디어' 출시

자연유래, 자연원료, 자연분해 되는 천연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집들이, 신혼부부 선물에 알차고 착한 에코템

복사골공예협동조합(이사장 이인순)은 환경오염으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를 지키고,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장바구니, 머그컵, 텀블러 주머니 등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이처럼 복사골공예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템을 구상하여 올해는 특별히 천연수세미와 소창 행주를 출시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천연수세미는 화학제품인 세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세정력이 탁월하며, 자연에서 온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용한 수세미는

자연 생분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소창행주' 역시 목화로 만든 면 소재로 예전부터 아기를 기저귀, 면 생리대, 행주 등으로 쓰던 쓸수록 질겨지며 먼지가 적고 질겨서 삶아 써도 삭거나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사골공예협동조합 인스타그램



구입문의 | 복사골공예협동조합 010-9413-7019



부천YWCA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

1.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시장확대사업

2. 부천시 일·생활균형지원사업의 가사서비스 사업

3. 돌봄미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문의 | 032-668-9700



이디놀이심리연구소, 이음플러스와 “능률향상 교육 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이사장 오산)와 이디놀이심리연구소(대표 이유민)는 지난 9월 18일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능률향상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음플러스와 이디놀이심리연구소는 능률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및 컨설팅을 상호 협의하여 공동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이음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에 이디놀이심리연구소의 독창적인 감정관리 프로그램이 융합된다.

글·사진 | 오 산(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후원받아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현장설비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설비 개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6월 공모사업을 통해 해냄기획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류재욱,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등 경기도내 20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후원을 받았다.

해냄기획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530여만원을 후원 받아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컬러복합기를 교체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와 반복작업을 하는 장애인직원과 디자인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해 기업의 예산 절감과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게 되었다.

해냄기획 류재욱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처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따뜻한 후원행사가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사회적 기업에게 활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출처 | 콩나물신문 (<http://www.kongnews.net>)

부천YWCA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

돌봄서비스

(가사관리·산후관리)

032-668-9700

천연 비누
천연 샴푸
천연 물비누

사랑이야기

032-719-2369

· 심리상담
· 교육

강사협동조합 SEUM

010-7656-7276

Eco'Soo

천연비누·디퓨저

· www.ecosoo.co.kr
· smartstore.naver.com/eco_soo

032-221-0909

미디어 제작 및 교육
지역사회 기안 연구조사 및 컨설팅
세계공동체문화답사
출판간행물
문화공간 비지트[B:zit]

www.coopiu.modoo.at
032.7654.2825

종이신문·인터넷신문

www.kongnews.net
032.672.7472

콩나물신문

목이버섯구매

착한농부 국내산 목이버섯

032-674-7474

공예리 협동조합

· 공연/이벤트
· 공간조성/환경디자인
· 인쇄/출력
· 디자인
· 기획/제안서
· 영상/애니메이션

070-4632-6856

Sweet Green

· 케이터링
· 음식서비스
· 샐러드&샌드위치

전문매장

032 321 1567

이음 심리상담센터

●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 통합 가족상담 서비스
● 이음플러스의 공감 케어 서비스

www.eumplus.net
032-673-0579

다·자·인·에
감동을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032.719.4980~1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 보육서비스 · 산후관리서비스 · 나눔간병서비스
·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 · 장미요양서비스

032-323-9408